

개 회 사

오 형 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장)

2 개회사

오늘 韓國地方財政共濟會와 韓國財政學會·韓國地方財政學會가 共同으로 開催하는 『2001地方財政세미나』에 公私多忙하신 中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趙泳澤 行政自治部 次官補님, 沈大平 忠淸南道 知事님, 그리고 우리 共濟會와 본 세미나를 共同 開催해 주신 韓國財政學會의 金峻永 會長님과 韓國地方財政學會의 朴元杓 會長님을 비롯하여 主題發表와 討論에 참여해 주실 兩 學會 會員여러분들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地方財政 發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京鄕各地에서 참석해 주신 地方議會 議員님들과 地方公務員들께도 甚深한 感謝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民選自治를 통한 본격적인 地方自治制 實施를 계기로 풀뿌리民主主義를 보다 확고히 하는 동시에 地方의 活力과 創意를 바탕으로 國家發展을 지속하려는 努力을 傾注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努力으로써 日淺한 地方自治의 年輪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無限競爭時代에 우리나라의 國家競爭力을 提高하는 肯定的 成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評價하고 싶습니다.

21世紀는 地方의 競爭力이 곧 國家의 競爭力이 되는 地方化時代입니다. 地方分權과 地方의 自主的 활동은 無限競爭의 世界經濟環境에서 國家發展을 先導하기 위한 基本戰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地方化를 追求하기 위한 要件 中 하드웨어적 틀은 제대로 갖추고 있으나 效率的 運營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要素는 아직도 改善해야 할 점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地域均衡開發과 住民福祉增進 需要에 직접적으로 充當되는 地方財政部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行政管理側面에서는 急變하는 環境에 대응할 수 있도록 電子政府(e-Government)의 構築 등으로 體系化되어 가고 있지만, 經濟活動側面 즉 財政運營은 디지털經濟時代에 순발력 있게 適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未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地方自治團體는 未曾有의 經濟危機속에서도 뼈를 깎는 자체적인 構造調整을 통해 地方行政 運營의 效率化를 增進하였고, 또한 合理的인 經營 및 財政對策을 수립하는 등 刷新的인 改善을 달성함으로써 지혜롭게 地方化를 다져 왔습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努力과 力量을 土臺로, 차가운 머리로서 地方財政의 問題點을 냉철하게 分析하고 뜨거운 가슴으로서 한 次元 높은 發展代案을 導出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오늘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事項들을 진지하게 論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主題인 「地域均衡發展과 地方財政의 效率的 運營」에 대하여 어떠한 問題點이 惹起되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함께 討論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금번 세미나는 2개의 분야별 研究主題와 綜合討論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地方財政發展의 진정한 主役이신 地方自治團體에서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體驗하신 事例發表를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명실공히 理論과 實務가 접합된 열띤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一回性行事に 그치지 않고 훌륭한 政策代案들이 摸索되어 우리나라의 地方自治와 地方財政이 더욱 發展되어 나갈 수 있기를 期待합니다.

끝으로 遺緒 깊은 忠節의 고장 이곳 忠淸南道 牙山市에서 값진 大討論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 勞苦를 아끼지 않은 關係者 여러분과 行事準備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家庭에 항상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2001年 8月 30日

韓國地方財政共濟會 會長 吳 馨 煥